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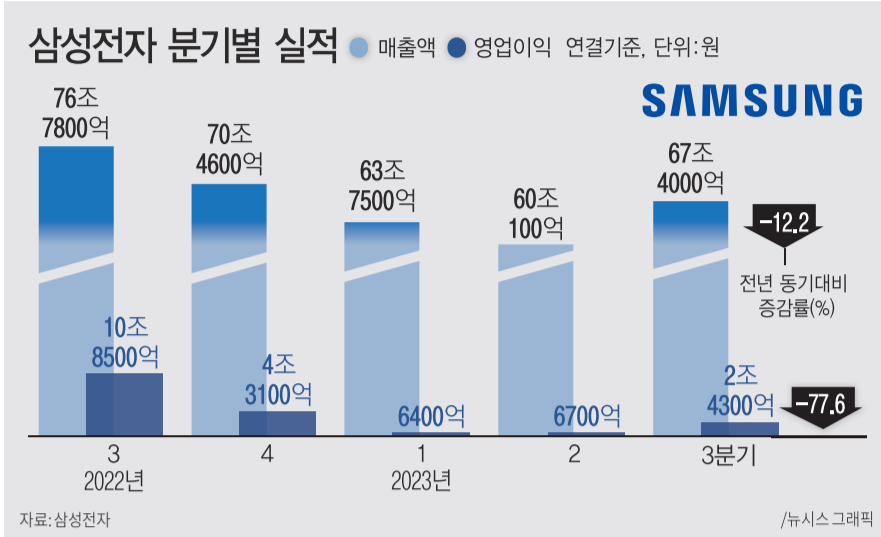
# 반도체사업 적자탈출 속도... HBM 등 초격차 리더십 관건

반도체 적자폭 크게 줄여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 집중  
연말 흑자전환 기대감 표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3분기 적자 탈출에 속도를 붙였다. 연말부터는 흑자 전환에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리더십을 탈환하는 게 관건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부문은 3분기 영업적자 3조75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누적 적자는 12조7000억원에 달한다.

반도체 시장이 여전히 저조했던 탓이다. 그나마 삼성전자는 갤럭시Z폴드·플립5가 인기를 끌면서 MX 사업부문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침체는 여전하다. 수요도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다는 게 중론이다. SK하이닉스와는 달리 D램 흑자 전환에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이 각각 1조7000억원, 2조원 수준 적자를 밝힌 바 있다. TSMC 역시 3분기에 시장 전망을 넘어서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나 줄었다고 공개했다.

대신 삼성전자는 반도체 적자폭을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다. 삼성전자 영업적자가 2분기(4조3600억원)에는 1분기

(4조5800억원)보다 2200억원 줄어드는데 그쳤지만, 3분기에는 6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증권가 전망치도 충족했다.

메모리 시장이 정상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HBM과 DDR5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D램 가격이 상승, 수익률이 크게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LLM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I) 반도체 시장 수요 급증으로 HBM과 같은 AI 가속기와 관련한 제품군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고성능컴퓨팅(HPC) 중심으로 역대 최대 분기 수주를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도 이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고객사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가격 상승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물론, TSMC와 인텔 등 기업들이 연말 실적 상승에 입을 모았다. DDR5 규격 확대 열쇠를 쥐고 있는 인텔이 시장 기대치를 훌쩍 넘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대감도 커졌다.

다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삼성전자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HBM3를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시작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HBM3E 양

산으로 이어간다고 밝혔다. 생산 규모도 올해보다 2.5배 이상 늘린다. 고성능 14나노급 D램을 기반으로 만들어 상품 경쟁력도 높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위기속에서도 투자를 지속한 덕분에 팹리케이션 3기를 초기 가동 중이라며 선단공정을 적극 도입하고 다양한 차세대 인터페이스 제품 등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는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운드리에서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와 3나노 경쟁력을 내세웠고,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에서는 HBM과 2.5D 패키징을 아우르는 턴키 주문 등을 수주했다며 내년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예상했다.

회복이 느린 낸드플래시도 업계에서 유일하게 싱글스택으로 160단 수준을 달성했다며, 300단대인 9세대 V낸드를 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S23·플립5'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실적 호자

신제품 효과 주요... 실적 견인  
내년 AI기술 탑재 스마트폰 예고

삼성전자 MX(모바일경험) 사업부문이 프리미엄 폴더블폰 신제품 효과로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3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31일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을 개최했다. 특히 MX 사업부는 폴더블 신제품과 갤럭시S23을 앞세워 3분기 실적 '호자'로 급부상했다.

### ◆ '역성장' 속 견조한 실적 올린 MX

삼성전자 MX·NW(구 IM) 사업부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 30조원, 영업이익 3조3000억원을 거뒀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매출은 6.9%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9% 증가했다.

시장분석업체 한국IDC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국내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28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다. 두 자릿수 하락세가 지속되는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신제품 폴더블 기기인 '갤럭시Z폴드5·플립5'를 앞세워 실적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갤럭시Z4 시리즈를 발매한 시점보다 2주 정도 빠르게 발매한 갤럭시Z폴드5·플립5는 사전판매량(102만대)을 기록하며 '국내 기준 역대 최고'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삼성전자는 향후에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IDC도 올해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2200만대로 관측하고 있어 플래그십 폴더블 시장이 4분기에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올 초 발매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라인인 갤럭시S23의 시리즈도 판매 모멘텀을 유지해 매출 상승에 일조했다.

삼성전자 측은 "폴더블·태블릿 신모델 판매가 호조를 기록했다"며 "주요 제

품군 플래그십 비중 확대 등으로 매출·ASP 상승 및 리소스 효율화로 견조한(전 분기 대비) 두 자리 수익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해 경기 회복세에 맞춰 플래그십 출하량은 두 자릿수 성장을 목표로 잡았다"고 밝혔다.

다니엘 아라우조 삼성전자 MX(모바일 경험) 사업부 상무는 "2024년 폴더블폰 시장은 전 지역 성장세가 전망된다"며 "플래그십 내에서의 비중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젊은 세대와 여성을 중심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타 제품군으로의 폴더블 확산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 ◆ 플래그십 주력하면서 중고시장 활성화도 검토

컨퍼런스콜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를 재차 강조했다지만 삼성전자는 다각도로 수익 창출을 노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국내에도 '리뉴드

폰(Re-Newed)'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리뉴드폰은 삼성전자가 품질을 공식 인증하고 직접 판매하는 '중고 스마트폰'으로 소비자는 성능이 보증된 중고폰을 신제품 대비 15~5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지난 2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뉴드폰 출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존에는 리뉴드폰을 영국, 프랑스, 미국 3개 국가에 선보였다"며 "국내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리뉴드폰 국내 활성화 시기를 비롯해 어떤 스마트폰 시리즈를 리뉴드폰으로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외부 클라우드에 접속하지 않고 기기 내에 생성형 AI 기



갤럭시Z폴드5, 플립5 /손진영 기자 son@

능을 탑재하는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본격적인 'AI 스마트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을 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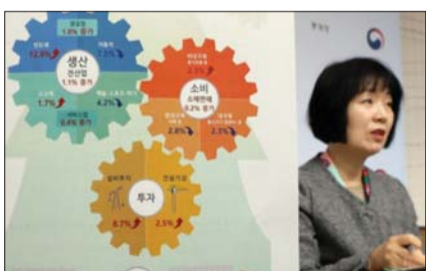
아라우조 MX사업부 기획그룹장은 "향후에도 스마트폰이 AI의 가장 중요한 액세스 포인트일 것"이라며 온디바이스 AI 기술 등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AI 기술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단말기에서 새로운 경험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핵심 기능에 AI를 적용하고, 사용자 패턴과 선호도를 기반으로 최적화해 더욱 의미 있고 혁신적인 경험을 내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정은 기자 zelkova@

### >> 1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서 계속

## 반도체산업 회복세...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통계청 9월 산업활동 동향  
전월비 반도체 생산 12.9% 증가  
"광공업·제조업 전반 회복 흐름"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며 4개월 만에 이른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대비 1.1% 늘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7월(-0.8%) 잠시 주춤한 이후 8월에 2.0%, 9월에 1.1% 등 두 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도체 생산이 12.9% 증가하며 제조업은 물론, 전산업 생산 증가를 견

약품(-13.1%)과 자동차(-7.5%), 1차 금속(-4.8%) 생산은 8월에 견줘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율도 113.9%로 8월에 비해 10.4%포인트(P) 내렸다. 기계장비(-9.0%)와 반도체(-6.7%), 1차 금속(-2.7%) 등이 재고를 크게 덜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0.4% 증가했다. 도·소매업이 1.7%, 숙박·음식업이 2.4%를 기록했다. 예술·스포츠·여가(-4.2%), 정보통신(-0.7%) 등은 전월 대비 줄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광공업과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3분기 들어 회복세가 강해졌다"고 밝혔다.

소비(소매 판매)는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에서 판매가 늘며 소폭(0.2%) 증가했다. 7월(-3.2%)과 8월(-0.3%)에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인 이후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전월에 견줘 8.7%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13개월 사이 최대 증가폭이다. 기계류(7.3%)와 운송장비(12.6%) 등이 증가를 이끌었다. 설비투자는 그러나 작년동월에 비해서는 5.7% 감소했다.

김심의관은 "재화부문 소비는 여전히 주춤한 상태. 설비투자 역시 작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내려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향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전폭적 투자 기조 지킨다 HBM3 출하 등 수익 강화

### ◆ 투자 지속, 연말 회복 기대

삼성전자는 올해 위기 속에서도 3분기에만 11조4000억원을 투자하며 연말까지 누적 53조7000억원을 미래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연간 최대 규모, 올 초 약속했던 것처럼 전폭적인 투자 방침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연말부터 회복세가 더 가파를 것이라는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글로벌 IT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저점'이라는 인식과 AI 붐으로 인한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난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폭 확대에 더해 HBM3 등 본격 출하로 수익성도 크게 회복될 것으로 봤다. /김재용 기자 juk@